

생산일 : 2001. 2. 14

報 道 參 考 資 料

제 목 :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결의안 美의회 제출

주요내용

□ 미국의 Larry Craig(공화당, 아이다호주) 상원의원등은

○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조치는 한국의 IMF와의 합의,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, 미국의 IMF 중자관련세출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

- 동 조치를 비난하고 한국과 미국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·하 양원 공동결의안 (Concurrent Resolution)을 2.13일(미국시간)에 제출

※ 별첨 : 美의회 결의안 주요내용 및 당부입장 1부

보도참고자료 생산과 :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(☎ 500-5341)

(과장 : 최중경, 사무관 : 한승우)

재정경제부 공보관

美의회 결의안 내용 및 당부입장

1. 美의회에 제출된 결의안 주요내용

- ☐ 한국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년간 저금리 여신제공, 보조금, 세금혜택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, 그 결과 동 산업에 무역왜곡적인 투자, 생산시설 확장, 대규모 부채가 누적되어 왔음
- ☐ 최근 산업은행의 현대전자 회사채 신속인수조치는 한국과 체결한 IMF Standby Arrangement 합의,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협정과 미국의 IMF 증자관련세출법을 위반한 것임
- ☐ 미 의회는 동 조치로 인해 한미관계가 손상되었다는 인식하에 한국 및 미국정부에 대해 아래 사항을 요청기로 결의
 - 현대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를 중단하고 IMF 합의와 WTO협정을 준수할 것(한국정부)
 - 동 조치에 따른 효과를 상쇄하거나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것(미국정부)

◇ 美의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상원 재무위 회부·논의 및 상원 전체회의 표결절차를 거쳐 하원에 회부되며 하원에서도 상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통과여부가 결정

* 동 결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정부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

2. 당부 입장

◇ 회사채 신속인수조치는 IMF 합의, WTO 협정 및 미국의 IMF 예산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

□ IMF Standby Arrangement 합의 위반 여부

- 97.12월 한국정부는 IMF와 Standby Arrangement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내용은 금융·기업부문의 개혁, 금융기관의 시장원칙에 따른 운영, 정책금융(Directed Lending) 제공 금지등을 약속한 바 있음
- 신속인수조치는 회생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강력한 자구노력과 연계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고, 시장금리에 가산금리까지 적용하므로 구제금융도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IMF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

□ 미국의 IMF 증자관련대출법 위반여부

- 미국의 IMF 예산법은 IMF 자금이 한국의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미 재무부장관의 확인이 있어야 IMF 자금의 인출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나

- 산업은행은 IMF 자금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IMF 증자관련 세출법의 적용대상이 아님

* 97.12월이후 한국에 대한 IMF의 자금지원이 IMF 이사회에서 모두 승인된 것은 IMF자금이 특정산업 지원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반증

□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협정 위반여부

○ WTO 협정 위반은 특정성(Specificity)이 있으며 혜택(Benefit)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

- 신속인수조치의 경우 대상기업을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무차별(non-discriminatory)하게 선정하고 있으며

- 회사채 발행금리도 시장금리에 적정 가산금리가 적용되도록 하여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부여하지 않고 상업적 원리(market-based pricing)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므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

* 신속인수방안시 현대전자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조정전후의 총조달비용은 씨티은행이 참여한 Syndicate loan(2000.12)의 총소달비용(13.08%)보다 0.5~2.3% 높은 수준이며

** 신용평가회사가 현대전자의 신용등급(BBB⁻→BB⁺)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상향조정되는 시장원리가 적용